

장백산천지

제 243 호

2014 년 11 월 26 일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파룬궁 대 연공은 인심을 진감시키고 바른 믿음은 시련을 이겨냈다

“이처럼 평온하고 강대한 에너지와! 저기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 에너지는 강대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장엄하고 신성해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이 경이한 마음이 일게 하네요. 이는 하나의 진정한 국제단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단 이 한가지 목표를 위해 전심전의로 만단의 준비를 하고 온 것임을 확연히 보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게 합니다.”

이는 Sales Force 글로벌사이트공정 신뢰성총감독 케시·에임스(奎西·埃姆斯)가 파룬궁수련생들이 샌프란시스코 비르만공원에서 성대한 단체 연공을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한 말이다. 2014년 10월 15일 이른 아침, 미국 샌프란시스코 파룬궁수련심득교류회 전야, 4천여 명이 되는 파룬궁수련생들이 세계각지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와 현지 제일 부유하다고 이름난 사회구역과 관광지부근에 있는 공원, 시청, 그리고 중국인 거리에서 대형 연공, 행진과 집회 등 형식으로 ‘真、善、忍 (쩐, 썬, 런)’의 아름다운 펼치었다.

올림픽 스키 메달수상자: 파룬따파는 전 인류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었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남자 싱글 루지 동메달리스트, 라트비아 국가팀의 선수 마딩스·루벤니스(马丁斯·鲁本尼斯)도 연공 대열에 있었다(오

른쪽 사진) 그는 “오늘의 대 연공은 우아하고 장관입니다. 이처럼 많은 대법제자들이 부동한 민족 부동한 국가로부터 모여온 것을 보고 대법이 갈수록 광범위하게 전파 되고 있어 저도 너무 기뻐요.

저의 한 친구는 예전에 대법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제 저는 여기에서 그에게 연공을 배워주었는데 오늘 그 친구도 단체 연공에 참여했어요.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는 오늘 우리와 같이 한 시간이나 가부좌를 했습니다. 사부님은 진짜 연분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파룬따파는 전 인류에게 크나큰 은혜를 가져도 주었어요.” 라고 말했다

“어떠한 경력, 배경,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출생하던 모두 다 파룬따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을 금방 얻었을 때는 깊은 내포를 모르고 그냥 연공만 했었는데 사부님께서 저의 신체를 정화하여 주셔서 전신의 운동으로 온 통증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1년 후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대회에서 저는 라트비아를 위해 첫 번째 올림픽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나는 대륙 파룬따파수련생들이 중공의 잔인한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법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이 몇년을 걸어오고 보니 이는 진정으로 인류를 구도하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더욱 깊이 믿게 됩니다. 사부님의 은혜에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비바람의 시련을 걸쳐 파룬따파는 세계에 널리 전파되다

1999년 7월 중공은 파룬궁에 대해 소멸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15년간의 비바람 속에서 억만 파룬궁수련생은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반박해 역정에서 파룬따파를 세계 백여 개 나라와 지구에 널리 전파하였고 사회 각 계층 어디에나 수련생이 있게 되었다.

바로 본문 서두에서 이야기한 케시·에임스 선생은 파룬궁 전단지를 본후 “나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련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파룬궁을 배우고 그 중의 한 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真、善、忍 (쩐, 썬, 런)’의 가치관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원칙이며 세계의 평화, 사랑과 행복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시했다. ◇

밍◎후이◎단◎신



◎201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파룬궁수련생 요고 팀과 천국악단은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과 부 대통령의 취임식 행진에 초청 받았다. 행진이 끝난 후 천국악단과 요고 팀은 허가를 받고 대통령 관저에서 연주를 했다.(앞면의 사진)

◎2014년 10월 6일 저녁, 체코의 저명한 예술가 여러 명이 수도 프라

하 산타애나 교회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더 많은 체코 민중들이 중국대륙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중공정권의 박해를 요해하고 관심 할 것을 희망했다. 비올라 연주가 Jitka Hosprova(伊特卡·霍斯普洛娃)는 파룬궁수련생이 제작한 음악 “구도 받다”(得度)를 연주했다. 그녀는 “중공이 파룬궁수련생들에게 크나큰 고통

을 주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다

◎2014년에 대륙에서는 유럽 관광 고조가 일어났다. 대륙 관광객들은 탈당센터에서 다투어 진상자료를 보았다. “공산당은 정말 나쁘다!” 라는 말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었다.



연변박해소식

◆훈춘시 쉬구이사가 자택에서 3차례나 610과 경찰의 소란을 받다

◆화룡현 팔가자 림업국 판구이룽이 연길 세뇌반에 납치되다

판구이룽(范桂荣)은 길림성 화룡현 팔가자 림업국 직공병원 황구림장 진료소의 호사이다. 2014년 11월 18일, 팔가자림업국 직공병원 원장 귀젠린이 거짓말로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한다고 판구이룽을 속여서 불러 낸 후 하북 파출소 소장 자오바오린이 연길세뇌반으로 납치해 갔다.

2014년 9월 26일 오전 9시 후, 시공안국 국보대대 리씨와 운전기사, 그리고 광명파출소 안씨 민경이 길림성 훈춘시 파룬궁수련생 쉬구이샤(徐桂霞)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아무런 신분증명도 내 놓지 않고 강박으로 그녀더러 검찰원에 가서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다. 오랜 시간 지속하다 결국 쉬구이샤가 신을 신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인원들은 그녀를 강제로 끌어 당겼다. 쉬구이샤가 나는 신을 신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들은 남편더러 신을 뿌리라 하고는 그녀더러 신게 한 다음 검찰원으로 데려갔다.

2014년 10월 어느 날 오전 10시 좌우에 또 2남 1녀 세 사람이 쉬구이샤의 집에 와 소란을 피웠다. 여전히 아무런 증명도 내 놓지 않아 어디에서 왔는가 물으니 ‘610’이라고 하면서 보러 왔다고 했다.

11월 4일 쉬구이샤가 집에 없을 때 광명파출소의 지역 책임 민경 안씨가 또 그녀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다. 문을 노크하지도 않고 직접 집안에 뛰어들어 와서는 방마다 모두 돌아봐도 그녀를 찾지 못하자 그녀 남편에게 어디에 갔는가 물었다. 당시 쉬구이샤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말하자 민경은 자기 아내가 어디에 간 것도 모르냐고 했다. 쉬구이샤 남편은 당신의 아내가 어디에 간 걸 당신은 아는 가고 하자 민경은 도리어 욕설을 퍼부었다. 쉬구이샤 남편이 그런데 당신은 왜 사람을 욕 하는가 고하니 민경은 자기 옷에 달린 경찰휘장을 가리키면서 “내가 너를 욕 하면 어쩔래? 나는 안씨다, 네가 날 고발해 보라, 나는 너를 죽여 버릴 테다.”라고 했다. 쉬구이샤 남편이 그를 더는 상대하지 않자 그는 가버렸다.

생사의 순간을 경험하다

[밍후이왕] 생사에 직면해 인류는 거부할 수 없으나 나는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신기한 일념에 따라 위기를 넘었다.

나는 올해 55세이고 라오닝 링위안(凌源) 모 회사에서 하역부를 한다. 일은 이러하다.

2013년 7월 2일 이침 8시, 나는 대형 유조 트럭에 있는 철근을 부렸는데 내 책임은 연결 작업이다. 기중기가 트럭 앞부분에 멈춰 섰고 나는 신속하게 차에 올라 여섯 돈 무게의 철근을 기중기 큰 갈고리에 걸었는데, 비뚤게 걸렸는데도 당시 주의하지 못했다. 이때 차량 아래 지휘원은 작은 기를 움직이며 호각을 불어 기중기가 들어 올리는 것을 지휘했다. 철근을 막 1미터 올렸을 때 갑자기 철근이 절반 정도 회전할 줄을 누가 알았으랴. 철근이 나와 부딪쳐 단번에 나를 기중기 가드레일까지 밀었으며 나는

갑자기 눈앞이 칠흑 같아 숨도 쉬지 못했다. 그 시각 나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가 생각났는데 바로 이 일념이 나를 죽음의 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일꾼들은 떠들썩하며 내 이름을 부르며 기중기에 기어 올라왔는데 그들은 모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었고 정신도 매우 또렷했다.

일꾼들은 모두 기뻐서 야단이었다. “이런 만 근도 넘는 철근이 형님을 끼어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어떨지?” 다른 한 일꾼이 말했다. “그런 상황이면 대부분 불구가 됐겠는데 형님은 아무 일도 없었지! 그건 모두 형수가 파룬따파를 수련했기 때문이야. 한 사람이 수련하면 전 가족이 이로움을 얻는다는 것과

같아.”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중이었고 나는 매우 빨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검사받았는데 그 결과 갈비뼈 두대가 부러지고 흉부에 몇 군데 굵은 흔적이 있고는 내장 및 다른 부위는 모두 정상이었다. 병원 의사와 일꾼들은 모두 놀라며 말했다. “신기하다, 내일부터 우리는 가족에게 파룬따파를 수련하게 하자.” 나는 말했다. “당신들은 늘 ‘파룬따파하오’를 읽으면 돼요!”

나는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일주일간 침대에 있었던 후, 침대에서 내려 스스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고 휴양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 직장에 어떠한 경제적 보상과 요구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 역시 아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하므로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은연중에 영향을 받아 일부 이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료녕성 청우 ◇